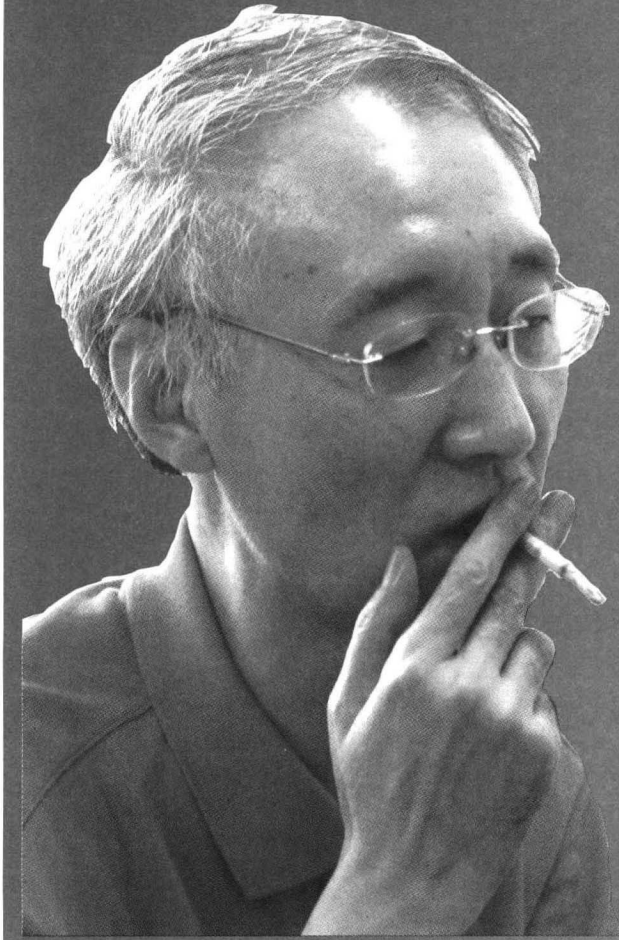


《자유가 너희를 진리케 하리라》《광마잡담》
《비켜라 운명아 내가 간다》 잇달아 펴내
‘여전히 발칙하게
야한 인생 살련다’



지난 세월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결혼생활마저 허망하게 끝이 난지 오래여서 더욱 그래요. 마음이 허전해서 그저 일종독 환자처럼 글을 통한 대리배설(카타르시스)에 매달리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직접배설’ 한번 못해 보고 사랑의 역사를 마무리할지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도 드네요.

전북대 강준만 교수는 기도했다. ‘위선의 신이여! 마광수의 착한 마음에 국가와 민족이라는 위선의 기를 불어넣어주소서!’

마광수, 그가 누구던가. 애초 씨가 먹힐 리가 없건만, 의외였다. ‘위선의 전술’을 구사하는 게 어떠한가 강 교수의 권면에 마광수 교수는 ‘그러마’고 화답하는 듯했다. ‘친박한 언어’ 대신 ‘비비꼬고 돌리는’ 수사법을 쓸 것처럼 보였다. 직설적 상소리 대신 ‘문학신성주의’에 대한 경의에 찬 수사로 일관하겠노라 다짐이라도 하는 것 같았다.

“나의 철학에세이 《비켜라 운명아 내가 간다!》 읽어보셨어요? 그게 그 답이죠. 엄숙하잖아요? 모처럼 운명과 산다는 것에 정색하며 정성을 다해 쓴 책이에요. 점잖은 사색의 그늘이 곳곳에 드리워 있는 그런 책이랍니다.”

정말 그렇다. 책에선 체념적 운명론에 대한 ‘점잖은’ 사유와 함께 마 교수만의 생각의 깊이가 속살을 드러낸다. 박학다식함이 빛을 발한다. 기독교·불교·유교·도교에 대한 해박한

통찰은 《즐거운 사라》만으로 ‘마광수’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그를 다시 보게 할 법도 하다.

위선? 절제?... 그의 원초적 ‘시니피에’ 결코 죽지 않아

허나 그뿐일까? 책의 행간을 더듬어보면 역시 ‘마광수’는 살아 있다. “예수는 유일신에 의한 운명결정론을 거부했다”거나, “가톨릭의 ‘내탓이오’는 죄의식의 굴레에 맴돌게 할 뿐”이라는 등 ‘위선의 경계’를 이슬이슬하게 넘나들고 있다. 마침내 못 참겠던지 그는 “적당히 퇴폐해야 행복해진다”고 선언한다. “쾌락으로서의 성을 부끄럼없이 향유하라”며 ‘오럴 섹스’를 권하고, ‘개방사회의 자연스런 관음자들과 페티시스트들’을 소개했다.

2005년 6월의 마광수. 그는 여전히 속내를 드러내는 방식, 곧 ‘기표記表’를 바꾸는 시늉은 했을지 몰라도, 원초적 시니피에를 포기한 적은 없다. 앞으로도 옳다고 여기는 것을 수정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일본에선 나의 소설을 두고, ‘반유교적 이념소설’이라며 의미 있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 땅의 ‘도덕을 팔아먹는 사람’들과는 상반되는 시각이죠. 문화적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면 관능적 자유와, 관능미의 민중적 확산 작업 정도는 얼마든지 수용한다는 징표입니다.”

진리의 속박을 벗어나 자유를...

융통성 없는 ‘신념’은 그가 가장 미워하는 것 중 하나다. 편협과 독선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에 펴낸 장편 《광마잡담》과 에세이집 《자유가 너희를 진리케 하리라》는 유미적 쾌락주의에 대한 그의 신념의 소산이다. 성과 관능적 자유를 통한 인권 회복이 창출하는 ‘복지지상주의’를 관철하고자 함이다.

하지만 아직 시대의 상식은 이를 수긍하지 않는다. 상식을 앞서가는 그에게 ‘외설’과 ‘몰상식’이란 돌팔매는 줄곧 따라붙는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다. 《즐거운 사라》 때와는 여건이 달라진 듯하나, ‘가학적’인 세간의 취향은 온갖 구설을 낳고 있다.

“《광마잡담》을 두고 이런 저런 비난과 평가가 많아요. 특히 두 번째 에피소드 <두 여인>을 두고 말이 많습시다. 하긴 ‘마광수 땀에 AIDS가 들어난다’고까지 한때 떠든 사람들도 있는 세상이니 그러려니 해요”

《두 여인》은 이 책 아홉 개 사랑 이야기 가운데 가장 야하다면 야한 얘기다. 십대 소녀 미향과 세라, 그리고 작중 주인공이 빛나는 판타지 사랑과 섹스가 줄거리를 이룬다. “미성년의 ‘영계’를 성애의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일부에서 거품 무는 이유”라는 게 마 교수의 설명이다.

《자유가 너희를 진리케 하리라》는 제목부터가 기존 가치에 대한 ‘판지결이’다. 성경 구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의 주부·술부를 뒤바꾼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진리는 오히려 폭력과 권력, 도그마가 되기 쉽다”는 마 교수는 “중세기 마녀사냥이나 십자군전쟁, 히틀러의 유태인 씨말리기, 그리고 지금껏 자행되는 성의 억압이나 모럴 테러리즘이 모두 진리의 이름으로 행해졌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마 교수가 의도한 것은 한발 나아가 ‘자유가 너희를 진리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리라’란 편이 걸맞다.

끝없는 ‘야한 이야기’... ‘자유로운 개성·관능으로 인성 말살 막는다’

그는 “참된 자유는 ‘열린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다. 또한 “본성에 솔직한 마음에서 나온다”고 외친다.

“참된 자유는 방종을 동반하지 않고, 그 결과는 바로 행복입니다. 정신우월주의에 기초한 편벽한 위선의 지옥을 벗어나야 합니다. 정녕 천국의 문은 것처럼 영혼과 육체가 합일될 때 열리게 마련입니다.”

바뀌 말하면 자유분방한 개성과 관능의 쾌락을 통해 인성 사색의 말살을 막기 위함이다. 마광수의 ‘야한 담론’의 진짜 속뜻이다. ‘하필이면 왜 그렇게 섹슈얼리티에 연연하느냐’고 누구든 묻기라도 하면 들려줄 법한 현답이다.

그의 야한 이야기는 끝이 없다. 소설 《권태》와 《광마일기》《불안》《자궁속으로》《알라딘의 신기한 램프》, 에세이집 《나는 야

한 여자가 좋다》《열려라 참깨》 등. 이들 작품이 출간될 때마다 세상은 그를 ‘절제’와 ‘질서’, ‘윤리’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강 교수의 말마따나 그는 불행중 다행히도 ‘사회적 테러’를 향해 비틀대고 있긴 하지만 번번히 죽진 않았다. 일각에선 ‘마광수는 옳다’며 지원에 나서는 세력도 있다.

정작 세상의 참된 자유를 갈구하는 그는 개인적으로 괴롭고 외롭다. 십수 년째 견뎌온 지성 사회의 ‘왕따’ 신세는 그렇다 치자. 《즐거운 사라》의 즐겁지 않은 고통과 기억은 아직도 어두운 잔영으로 남아 그를 고통스럽게 한다. 당뇨와 혈압, 위장병이 돼 그를 괴롭힌다.

지성계의 ‘왕따’ 신세...그래도 ‘운명은 야박하다’

“지난 세월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결혼생활마저 허망하게 끝이 난지 오래여서 더욱 그래요. 마음이 허전해서 그저 일중독 환자처럼 글을 통한 대리배설(카타르시스)에 매달리게 되지도 모릅니다. ‘직접배설’ 한번 못해 보고 사랑의 역사를 마무리할지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도 드네요.”

말로는 “나도 애인이 새로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새로운 구원의 천사가 내 앞에 나타나 주리라고 기대하고 있을 뿐, 나서서 구해 보겠다는 생각은 없다”고 한다.

하긴 강준만 교수의 말마따나 그는 영원히 외로울지도 모른다. 우리 시대의 상식을 과신한 ‘죄’ 때문이다. 그럼에도 ‘마광수’는 결코 무릎을 꿇지 않을 태세다. 이중적 의식구조와 ‘지성계의 오염’을 제거할 야한 얘기를 그치지 않겠다는 태도다.

“운명은 야박합니다. 행복한 운명은 인내와 절제가 아니라 관능적 열정과 순진한 데쓰기에 있습니다. 왜냐? 운명은 솔직하기 때문이죠. 육체적 본성이 지닌 솔직한 욕구에 따라 정직한 기체처럼 움직이는 게 운명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당당하게 발칙하게 야한 인생을 그는 살 생각이다. 대의 명분의 더께를 벗어버린 솔직한 성애론과 변태론과 페티시즘과 관능적 판타지를 그는 지치지 않고 사랑할 참이다. 그렇고 보면 그는 애당초 ‘위선의 전술’로 바꿀 생각일랑 아예 가져본 적 없는 셈이다. ❦

취재 박경만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 인터뷰 후기 마광수 교수는 야했다. 비록 머리는 회색회색했지만, 밝은 오렌지색 티셔츠에 해맑은 표정은 나이보다 몇 살쯤 낮춰보이게 했다. 그는 《즐거운 사라》 때문에 검찰에 불려갈 때 <출판저널>을 들고 간 기억이 난다”고 했다. 당시 게재된 관련 기사를 변호인 자료로 활용한 적이 있다며 옛 인연을 들켰다. 그에게도 이제 외로움의 실루엣이 찾아온 것인가. “전과자 신세로 연금도 못타먹고, 8순 노모 병구완할 여자 하나 없는 신세로 한탄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가한 외로움을 음미하기엔 아직 너무나 야하다. 그의 연구실에 걸린 야릇한 액센트의 그림 두어점이 방안 공기에 야한 활기를 불어넣듯, 그는 ‘남과 다른 야한 생각으로, 글썽에 흘린 야한 나뭇잎을 살겠다’고 한다. 그는 저술활동을 잠시도 쉬 적이 없다. 언론매체 역시 그 성격을 가리지 않고 ‘청탁 불문’이다. 최근엔 <서울신문>에 ‘섹스스토리’를 연재하는 한편, 또다른 야한 책을 준비하고 있다. 마광수의 야한 퍼레이드는 것처럼 쉬이 없다.